

---

# 2020년 제35호 방송심의보고서

---

2020. 8. 21. ~ 8. 27.



한국정책방송원  
KTV 국민방송

프로그램	여러분의 북마크		
방송일자	2020. 8. 21.	시청률	0.022

### 【총 평】

단박툰은 '대북제재, 위기 타파하기 위한 북한만의 독특한 내부기강 확립 방법'을 통해 북한이 당면한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는 상황을 살펴본 뒤 경색된 남북관계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 해결책을 제시한 기획이 뛰어났다.

북한의 '독특한 북한 내부 기강잡기 정책'을 진단해봄으로써 대북제재, 코로나19, 수해까지 겹친 최악의 상황을 극복하려는 북한의 실상을 상세히 전달했다. 북한의 최근 기강잡기 방식으로 제시된 두발단속, 장마당 세대인 청년 사상교육의 강화, 어릴때부터 사상교육, 애완견 금지, 북한 간부의 갑질 단속 등이 공개돼 흡인력을 높였다.

북마크TV는 경제난 속 최근 북한이 강조하는 신토불이로 누에치기와 유모란 꽃재배를 소개해 북한의 실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줬다.

### 【구성 및 내용】

북한 당국이 코로나19와 수해 등 복합적인 위기 상황 속에서 내부결속과 기강을 다잡기 위한 움직임을 소개했는데, 위기의 실체와 북한 주민이 겪고 있을 어려움을 직감할 수 있는 내용이었다. 또, 북한 사회에 불고 있는 사회 문화적인 변화의 일면을 들여다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경제난, 체제불안 속에 주민들을 단속하고 다독이기 위해 현장 사찰 행보가 잦아졌다. 특히,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운전을 몰고 수해현장을 방문하고 수해 주민들에게 식량도 나눠주는 등 장마철 피해로 인한 심각한 민심을 다독였다.

단박툰은 왜 북한 당국이 내부기강을 잡고 결속을 도모하고 있는지 전후 사정을 설명했는데 북한 사회에 닥친 위기의 실체를 짐작할 수 있었다. 특히, 헤어스타일을 정해줄 정도의 통제, 그리고 외국 문물을 접한 소위 '장마당세대'에 대한 단속에서 북한이 사회 문화적으로 어떤 변화를 겪고 있는지 잘 느낄 수 있었다. 또, 북한에서도 젊은 사람들 사이에 휴대폰 문자메시지 전송시 줄임말, 외래어, 신조어 등을 쓰는 빈도가 늘어나고 있는데, 북한에서는 인민들의 서구화를 우려하고 있다. 북한에서는 애완견 금지법이 있는데 시장경제를 통해 벌어진 북한 내부 격차에서 불거지는 문제로 보인다. 이와 함께 북한 간부들의 갑질의 단속이 필요함과 동시에 예전과 달리 당 간부를 대하는 북한 인민들의 태도가 많이 달라졌는데, 그만큼 북한 인민들의 힘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북마크TV는 척박한 땅에서 잘 자라는 뽕나무를 초밀식 재배법으로 키우고 이를 통해 누에고치 생산소식을 전했다 북한에서는 누에치기가 농가의 최대 소득원으로 여겨지고 있고 경제적 가치가 높다. 또 기름나무 유모란은 관상적 가치는 물론 유모란 열매 기름의 경제적 효과 또한 높다. 유모란은 콩에 비해 2배 이상의 기름이 추출된다. 해당 기름은 항산, 항노화, 뇌발육 동맹경화 치료에 도움이 되는 성분이 들어있다.

프로그램	사운드멘터리 풍경 소리		
방송일자	2020. 8. 22.	시청률	0.002

### 【총 평】

식와 붓의 절묘한 조화로 시청자들에게 깊은 울림을 준 “천 년의 소리, 시가 되다”를 방송했다. 국가중요무형문화재 제112호 주철장 원광식 범종제작 장인과 국내 1호 이상현 캘리그래피 작가와의 이색 만남을 매끄럽고 세련되게 구성해 시청자들에게 따뜻함과 여운을 주었고, 한 편의 묵직한 시를 읽어내 듯 프로그램 완성도를 높였다.

범종 장인 부자의 묵직한 범종 제작 과정과 범종 소리에 민감한 모습을 통해 소리를 시청각예술로 표현하는 행위가 얼마나 고귀하고 아름다운 일인지를, 이상현 작가의 선과 문자가 어떻게 소리로 발현되는지를 아낌없이 보여주었다. 또, 범종 제작 장인과 아들로 이어지는 전통 직업 명맥은 고리타분하지 않게 표현되었고, 오히려 부자시간이 숭고하게 비춰졌다. 이상현 작가의 글씨 “바람에게 길을 물으니 마음 가는대로 가라하네”처럼 편안한 프로그램이었다.

### 【구성 및 내용】

산속의 고요한 아침 풍경과 비오는 산사의 운치 있는 모습을 정갈하게 그려 내고 거기에 빗소리와 풍경 소리를 얹어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의 작품처럼 눈길을 끌었다. 원광식 주철장을 통해 종을 만드는 일련의 과정이 아주 디테일하게 소개되어 또 하나의 볼거리를 제공했다. 평소 종을 많이 보고 그 소리를 자주 듣기는 해도 종을 만드는 과정을 상세하게 소개해 신기함의 연속이었다. 쇳물을 녹여 붓는 과정 또한 하나의 볼거리였다.

특히, 작업 과정이 소개되기 전에도 타종하는 모습을 통해 종소리를 들려주었지만 작업 과정을 다 보고 다시 듣는 종소리와는 느낌이 달랐다. 그만큼 종을 만드는 섬세한 과정이 잘 그려졌고 무엇보다 장인의 예술혼이 표현이 잘 된 것 같다.

또, 종을 제작하는 현장에서 쇳물이 녹는 소리에 맞춰 이상현 작가의 드로잉 작업이 이어졌고 그 결과물을 소개했다. ‘사운드 드로잉’이라는 장르가 매우 생소해서 눈길을 끌었고 ‘꽃 본 듯이’라고 쓴 작품을 장인의 인생에 빗대어 설명한 부분도 인상적이었다.

원광식 장인은 자신이 만든 종이 퍼져나가 있는 사찰 등을 다니며 종소리를 들어보고 가장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있고 깊은 여운을 남길 수 있는 타종 위치를 찾아 종의 위치를 잡아주었다. 종을 제작하여 필요로 하는 곳으로 떠나보낸 것이 끝이 아닌 자식을 기르듯 지속적으로 살펴보며 애정을 갖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평소 친분이 있는 칠장사의 주지 스님을 찾아가 차를 나누며 예술가로서의 고뇌를 상담하는 부분도 기억에 남았는데, 장인의 작품 세계와 장인정신이 한층 더 강조되었다. 사찰에도 장인이 만든 종이 설치되어 있어 타종 소리를 들었는데, 여러 번의 타종 장면이 있었지만 하나하나 색다른 의미를 주었다. 장인의 작업장에서 ‘평온의 순간에 잠시 머물다 가시겠습니까?’라는 메시지로 마무리 했다.

프로그램	우리동네 개선문		
방송일자	2020. 8. 22.	시청률	0.076

## 【총 평】

충북 괴산군에서 시행한 취약계층 수리지원 서비스인 ‘우리동네 출동반장’ 사업, 그리고 대덕산업단지 악취 발생으로 인한 주민민원 해결을 위한 대전시 유성구의 ‘악취상황실 및 악취측정차량 운영’을 소개했다. 산뜻한 아이디어를 정책에 반영해 주민 생활을 편리하게 바꾼 자치단체 수범사례가 방송돼 기획의도를 충분히 살렸다.

## 【구성 및 내용】

취약계층 수리지원 서비스로 호응을 얻는 충북 괴산군 ‘우리동네 출동반장’과 ‘악취상황실과 악취 측정차량 운영’으로 악취를 크게 줄인 대전광역시 유성구의 사례가 소개되었다. 특히, 지자체와 주민들이 서로 힘을 모아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공단의 악취를 해소시키는 수범사례를 소개한 기획이 돋보였다.

### ■ 취약계층 수리지원 서비스 괴산군 ‘우리동네 출동반장’

충북 괴산군이 취약계층 가정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소규모 수리를 지원하는 생활밀착형 지원사업인 우리동네 출동반장 사업을 시작했는데, 수도, 전기, 보일러 고장 지원 등 사소하지만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괴산군은 지난 3월 6명의 출동반장을 위촉했지만 코로나로 인해 잠정 보류했고 지난 6월에 본격적으로 활동을 재개했다. 특히 장마 후 누수, 파손 등 생활 불편 민원이 급증하여 이들 출동반장의 활약이 이어졌다. 출동반장이 장애인 가족의 생활불편을 해결하는 모습을 담았는데, 현장 도축 후 집은 물론 가축시설까지 방역을 우선 실시한 다음 현관 방충망을 교체시공은 물론 현관문 손잡이 파손도 수리해주었다. 어려운 시기에 우리 이웃의 정과 사랑을 느낄 수 있는 모범 사례였다.

### ■ 냄새와의 전쟁 악취 상황실, 차량 운영

대전시의 대덕산업단지와 그 인근 주택단지는 차량으로 10분 정도의 거리이지만 바람이 부는 날이면 산업단지로부터의 악취가 주거지역으로 번져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며 민원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지자체와 관련 기관이 노력하여 악취를 상당히 저감시켰다고 하지만 장마철, 여름철에 들어서면 악취가 배가되어 주민들의 고통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전시에서는 24시간 악취 상황실은 운영하여 상시로 민원에 대비하고 공무원들도 실제 악취를 확인하는 모니터링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 이동식 악취측정센서 및 장비가 장착된 차량 운영으로 데이터를 수집하여 악취 대응에 활용하고 있다.

2008년부터 대전시는 대덕산업단지의 악취에 대응하고 있지만 민원이 끊이지 않았는데 악취상황실 및 측정차량 운영이 이뤄진 이후 민원이 상당수 감소했다. 악취 저감을 위해 노력하는 지자체의 방침은 타 지역 사회에 모범이 됐다.

프로그램	PD리포트 이슈 본(本)		
방송일자	2020. 8. 23.	시청률	0.018

### 【총 평】

지난해 11월19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에서 약속한 내용이 그 후 어떻게 정책으로 구체화됐는지를 알아보는 내용으로 국민 제안이 대통령과의 약속으로 이어져 국가정책과 자치단체의 정책의 변화를 어떻게 이끄는지를 집중 조명했다.

국민과 대통령의 대화와 소통이 가져오는 긍정적 효과를 부각했고, 국민들의 관심이 큰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공공어린이 재활병원’ 등을 다뤄 관심을 끌었다. 특히, 기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이 무엇이고 국민의 제안을 통해 어떻게 개선됐는지와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공공어린이 재활병원’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를 현장 탐방식으로 다뤄 설득력을 높였다. 또, 국민과의 대화에서 직접 발언 기회를 얻지 못했으나 서면질의에 대한 회신을 받은 참석자의 사례를 소개해 흡인력을 높였다.

### 【구성 및 내용】

지난 2019년 11월에 있었던 ‘국민과의 대화’에서 제기됐던 제안 중 실질적인 제도적 변화와 성과가 있었던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을 중심으로 국민 제안의 실효성을 검증한 취재였는데 성공적인 결과를 얻어내기까지의 과정에 대해 일목요연하게 정리함으로써 ‘국민과의 대화’의 필요성과 긍정적인 측면을 부각시키는 효과가 있었다.

정부가 국민을 위해 귀 기울이고 노력하는지에 대해 확인할 수 있었고, 시민의 문제의식과 정부, 지자체가 함께 사회를 변화시킨 모범 사례는 고무적이었으며, 공공의 영역에서 필요한 정책을 소개해 다수의 공감과 관심을 살 수 있었다.

‘국민과의 대화’에 참여했던 ‘한부모가정 직장맘’의 경험담을 시작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공공어린이재활병원’ 등에 대한 성과만을 강조하지 않고 결과를 얻어내기까지의 과정에 방점을 찍은 내용 구성이 메시지를 강화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특히, 제도가 개선되기까지의 과정을 전후 사정을 잘 따져 보여줌으로써 제도의 변화가 의미하는 바를 짜임새 있게 전달했다. 또,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설명하면서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보충성의 원칙’이라는 개념을 쉽게 설명해 제도의 취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다. 생계급여 수급자 중 30%를 공제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확대되어 생계급여와 근로소득 수준은 조금은 증가할 것이며, 더불어 일하는 수급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했다.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의 경우 장애아를 아들로 둔 부모의 이야기를 통해 장애아들이 처해 있는 환경과 병원 건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는데 일반론적인 접근보다 쉽게 와 닿았다. 국내 최초의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은 11월 대전지역에 착공된다. 1층에는 일반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들을 마련해 장애인시설에 대한 인식을 개선시킬 계획이다.

마무리부분에서 ‘국민이 제안하고 국민이 이끈 제도적 변화’라고 메시지를 정리했는데 취재의 끝을 의미 있게 정리할 수 있었던 좋은 표현이었다.

프로그램	귀농다큐 살어리랏다		
방송일자	2020. 8. 23.	시청률	0.024

### 【총 평】

“우린 시간이 많은 어른이 되고 싶어요”는 충남 홍성군 구항면에 ‘쉽’을 위한 카페를 열면서 농사를 배우는 젊은 부부의 소박한 귀농 이야기다. 특히, 귀농의 꿈과 현실 사이를 지혜롭게 끌어가는 귀농 이야기로 충남 홍성에서 터를 잡고 땅을 일구어 예쁜 농가카페와 체험공간을 만들어 부부가 꿈꾸던 ‘시간’을 켜켜이 쌓아가고 있다.

특히, 귀농 귀촌을 위한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귀농 귀촌을 위한 가족 간의 소통을 어떻게 이뤄내야 하는지, 귀농 귀촌의 현실은 어떤지, 육체적 정신적 노동과 현실 간의 간극은 무엇인지, 귀농 귀촌을 하고 싶은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등을 세밀하게 다뤄 시청자들에게 현실적인 도움을 주었다.

또, 출산을 앞두고 있는 부부의 삶을 대하는 자세, 홍성 청년농부들 ‘왓슈’와 소통하는 부부, 알콩달콩 귀농 이야기가 시청자들에게 따뜻함과 행복한 위로를 준 방송이었다.

### 【구성 및 내용】

농촌의 폐가를 카페로 재단장해서 본격적인 귀농은 아니지만 농가카페를 운영하는 젊은 부부의 삶을 조명해봤다. 농가카페는 농가 그대로의 분위기를 살리면서 목조를 이용한 감성카페로 주민들에게 쉼을 제공하는 사랑방역할로 농촌으로 정착하는데 중요한 요인이었음을 알려주었다.

부부의 일터는 충남 홍성군 구항면으로 이곳은 젊은 부부가 뜻을 모아 3년 전에 정착했다. 처음에는 농사에 뜻이 있었지만 현실에 맞는 농가 카페로 바꾸어 차와 각종 음료, 간식, 유자, 생강, 마카롱으로 농촌사람과 이곳을 소문 듣고 찾아오는 사람에게 쉼터가 되고 맛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또, 젊은 부부의 알콩달콩 사는 모습, 아기의 탄생을 기다리는 즐거운 조바심 등이 잘 나타났다.

시작부분에서는 폐가를 개조해 만든 농가 카페의 이모저모를 소개하고 이 곳을 찾은 손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젊은 부부가 함께 마카롱 작업을 하면서 정착하게 된 배경과 앞으로의 계획 등을 언급했고 도시에 살 때와 시골에 정착한 이후 달라진 생활에 대해 이야기했다.

스마트 팜 시스템 구축 및 농촌융복합산업을 생각하며 귀농의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모습에서 농촌의 변화하는 미래를 보여주었고, 농촌을 새로운 산업의 블루오션으로 연구하는 모습이 동기를 부여했다. 또, 주인공 아내의 산부인과 진료와 육아 일기를 공개하고 아이와 함께 꾸려나갈 미래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었다. 특히, 폐가를 개조하여 아름답게 재생시키는 능력과 부지런함, 어렵고 힘든 과정을 수용하는 자세 등 건강한 젊은 부부의 모습을 전하였다. 이 밖에 무연고 귀농청년들의 안정적인 귀농정착 지원사업들은 귀농귀촌을 생각하고 있는 이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했다.

프로그램	국민리포트		
방송일자	2020. 8. 25.	시청률	0.102

### 【총 평】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는 폭염 관련 '대구 "덥다, 더워", 코로나19 속 폭염 이겨내요', '온도를 낮춰라, 축사 폭염과 힘겨운 싸움'은 시의적인 흐름을 잘 반영했고, 비 대면으로 열리고 있는 '대학가요제 비대면 무대, 아쉬운 사전 녹화' 소식은 코로나19가 가져온 변화의 단면이라는 점에서 의미 있는 소식이었다.

또한, 폭염 속에 가축을 보호하기 위한 축산농가의 노력을 소개하면서 현장 분위기를 그대로 전달했고, 취재 기자가 직접 축사를 방문하는 형식을 취한 것도 좋았다.

위기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흔들리지 않는 투수 류현진과 국민들에게 믿음을 주는 정은경 본부장을 대비하면서 '굳건한 마음가짐'을 주문한 마무리 메시지는 특징적이면서도 센스가 느껴지는 부분이었다.

### 【구성 및 내용】

#### ■ 대구 "덥다, 더워", 코로나19 속 폭염 이겨내요

최근 폭염 속 무더위를 이겨내기 위한 대구의 모습을 담았다. 길거리 버스킹 공연이 이뤄지거나 실내빙상장의 스케이트장에서 더위를 이겨내는 사람들의 모습, 그리고 폭염대비 그늘막을 설치하고 지하철역에서는 분수를 설치하는 등 대구시 곳곳에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무더위를 이겨내게끔 하는 시설들과 이벤트를 소개했다.

#### ■ 온도를 낮춰라, 축사 폭염과 힘겨운 싸움

무더위에 힘들어하는 것은 축산농가도 마찬가지다. 농민들은 더위에 가축들을 위해 축사 내부 온도를 낮추는 노력을 하고 있다. 쿨링팬을 설치하거나 지붕에는 스프링쿨러를 설치하여 물을 흘려주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축사 내부 온도를 유지시키고 있다.

#### ■ 대학가요제 비대면 무대, 아쉬운 사전 녹화

코로나19로 인해 140여개 팀이 참가한 대학가요제 예선이 비대면 사전녹화로 진행되었다. 공연을 시작하는 참가팀은 관객 대신 촬영장비를 대상으로 공연을 진행했다.

#### ■ '신비의 과일' 무화과, 주산지 수확 한창

전남 영암군에서는 당도 높은 신품종 청무화과가 재배되어 수확된다. 한 농장에서는 무화과를 수확하여 말랭이 등으로 다양하게 가공하기도 한다. 국내 무화과 생산량의 70%를 차지하는 전남 영암군은 신선한 바람과 토질덕에 고품질의 무화과가 생산되고 있다.

#### ■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지침] 어르신 및 고위험군 예방 수칙

만성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약 및 예방접종을 잘 챙겨야 하며 의료기관 및 약국의 방문은 자제하는 것이 좋다. 코로나 의심증세가 있을 경우에는 보건소 등에 연락해야 하며, 선별진료소 방문 시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자차를 이용을 권하고 있다.

프로그램	특특 사이다경제		
방송일자	2020. 8. 25.	시청률	0.102

### 【총 평】

“뉴딜펀드 조성, 새 경제 활로 전망은?”은 최근 정부가 내놓은 한국판 뉴딜 사업에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펀드 조성의 새로운 경제 활로를 찾는 방안에 대해 다루었다. 한국판 뉴딜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뉴딜 펀드에 대해 다루었는데 비교적 생소하고 어려운 개념을 나름대로 잘 풀어서 설명을 해주었고 무엇보다 그 취지를 확실하게 부각시키는 역할을 해주었다. ‘알뜰신잡’은 “면역력을 키우는 식품과 차”를 소개하였다. 면역력에 좋은 식품과 차를 설명할 때 각각의 성분과 효능을 자막 고지하여 호기심을 높였다. 특히, 뉴딜 정책에 대한 예산과 시중의 유동성이 부동산 가격을 부채질하는 등 문제가 되고 있는 시점에서 그 유동성을 생산으로 돌릴 수 있는 방안으로 검토되는 뉴딜 펀드는 관심을 끌기에 충분한 소재였다.

### 【구성 및 내용】

국민 참여형 뉴딜펀드의 취지와 배경을 시장으로 국내외 성공 사례와 과거 실패 사례를 비교하고 그 가능성을 점쳐봤다. 뉴딜펀드와 지역사랑 상품권 연계 방안부터 유동 자금 유입을 위한 효과적인 방법까지 살펴봤다. 정부가 마련하려는 뉴딜 펀드의 성격으로 국민 참여형 펀드, 원금 보장과 수익성 등과 함께 외국의 사례 등을 설명했는데 쉽게 이해할 수 있었다.

한국판 뉴딜정책 발표이후 정책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예산 160조원을 조달함에 있어 국민이 동참하고 이에 따른 수익의 일부를 국민에게 돌려주는 방식을 계획하고 있음을 전하였다. 총사업비 160조원의 10%를 뉴딜펀드로 조성함에 있어서 기관투자가 보다는 국민 참여형으로 펀드를 조성하여 시장에 떠도는 유동성 자금을 경제활성화를 위한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곳으로 유도하기 위함이다.

한국판 뉴딜정책에 거는 기대와 성과 측면에서도 국민 참여는 사회적 연대감 형성 및 정책 추진의 공감대 형성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게 했다. 또, 국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지역사랑 상품권은 지역의 소상공인을 위해 사용되므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균형경제를 이루는데 도움이 된다는 점을 설명하였다.

특히, 뉴딜펀드의 성격과 만기, 수익률, 세제 혜택, 안전성과 환금성 등을 구체적으로 다루었는데 특히 안전성에 많은 비중을 두어 설명한 부분이 좋았다. 시청자들이 가장 궁금하게 여길만한 부분이고 민감한 내용이라 비중 있게 다루었다. 또, 원금 보장에 대한 내용을 많이 강조했고 여기서는 국내외 성공사례를 함께 다루어 더욱 솔깃하게 만들었다.

독일과 서울시, 군산시의 성공 사례를 다룬 것도 좋았지만 실패 사례를 함께 다룬 점도 꽤 인상적이었다. 관 주도 펀드의 부작용과 개선해야 할 부분, 특히 뉴딜펀드의 성패 여부를 결정짓는 요인에 대해 목소리를 높인 점도 충분히 설득력이 있었다.



프로그램	특별생방송 '코로나19 위기 상황, 의사 파업 어떻게 봐야하나'		
방송일자	2020. 8. 27.	시청률	0.041

### 【총 평】

특별생방송, '코로나19 위기상황, 의사파업 어떻게 봐야하나?'는 코로나 확진자가 급속히 증가하는 시점에서 집단휴진으로 전공의와 전임의 90%가 자리를 비워 중환자 수술도 차질을 빚는 상황에서 시의성 있는 기획이 돋보였다. 의사 파업으로 빚어지는 실태에 이어 정부와 의사협회의 공방, 이슈인 의료개혁안을 진단해보고 협상 타결방안을 살펴보는 구성이 돋보였고, 의사 집단휴진에 대한 허위정보를 팩트체크해 유언비어 확산을 차단하는 효과도 기대되었다.

1차 코로나 확산을 경험한 계명대 의대교수와의 인터뷰로 현실적인 조언과 현장에서의 해결방안 등 문제해결에 도움을 주었다. 이와 함께 신규 확진자 급증에 따른 방역대책과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필요성을 살펴본 점도 국민의 궁금증을 풀어준 의미있는 대담이었다.

### 【구성 및 내용】

2020년 8월 12일 사랑제일교회 관련 최초 확진자가 발생하며 이후 급격히 확산된 코로나 확진자는 8월 26일 기준,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 933명, 광화문 집회 관련 확진자 219명으로 코로나19의 급격한 재확산이 이뤄지고 있다. 한편 이런 시국에 의사들은 집단휴진 및 전공의들의 사직서 제출 등이 이어지며 이에 대한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의사 파업이 왜 일어났는지 그 원인을 분석한 뒤 문제점에 대해 조목조목 따져 들어가 대안 제시도 없는 집단이기주의의 발로라는 점을 분명히 한 설득력 있는 토론이었다. 특히 코로나19 대확산과 더불어 집단휴진 문제를 시기적으로 잘 대응했고, 토론 이외에 다양한 내용 구성을 통해 의사 파업의 문제점을 제대로 드러냈다.

특히, 쟁점별로 나눠서 파업의 원인을 살폈는데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료 신설, 한방 협약 급여화, 비대면 진료 추진에 대한 반대까지 문제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4대 의료개혁에 대한 집단적 반발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4대 의료개혁안의 내용과 배경 등을 상세하게 소개해 정책 소비자인 국민의 판단을 도왔다.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파업은 안된다며 현장 복귀를 호소한 선배의사의 호소가 인상적이었고, 지금은 양보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이야기는 설득력 있게 와 닿았다. 이와 함께 정부와 의사협회 이외에 국민, 시민단체 등 3자 논의가 필요하고 공청회 절차도 필요하다는 생산적인 제안이 제시되었다.

파업과 관련해 난무하고 있는 허위 정보에 대한 팩트 체크는 가장 문제가 되는 주제를 선정해 파업의 성격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됐다. 중금속 허용치가 높은 한약을 건강보험에 적용한다?와 의료계 집단휴진, 경찰이 병원을 급습해 해산시켰다?는 내용은 팩트체크를 통해 가짜뉴스로 판명돼 조기 차단이 기대된다.